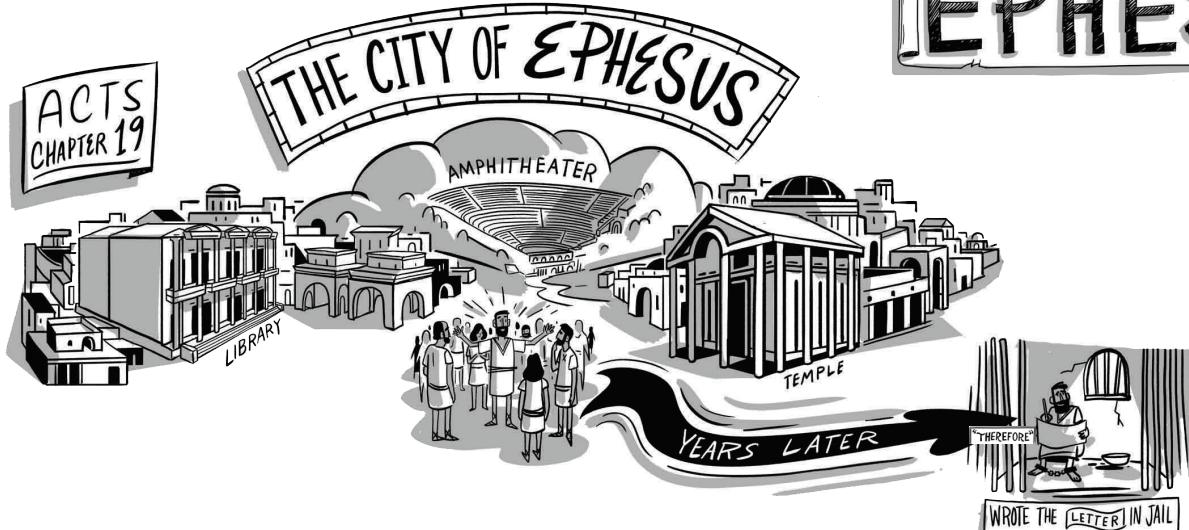


에베소서 Ephesians



서론: 에베소서 배경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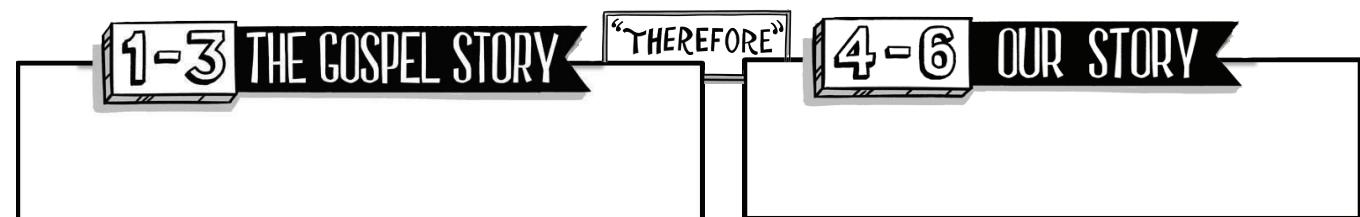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도시에 오게 되었는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고, 거의 모든 그리스-로마 신들에게 예배하는 제사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2년 넘게 그 곳에서 매우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로마에 수감된 후, 바울은 이 편지를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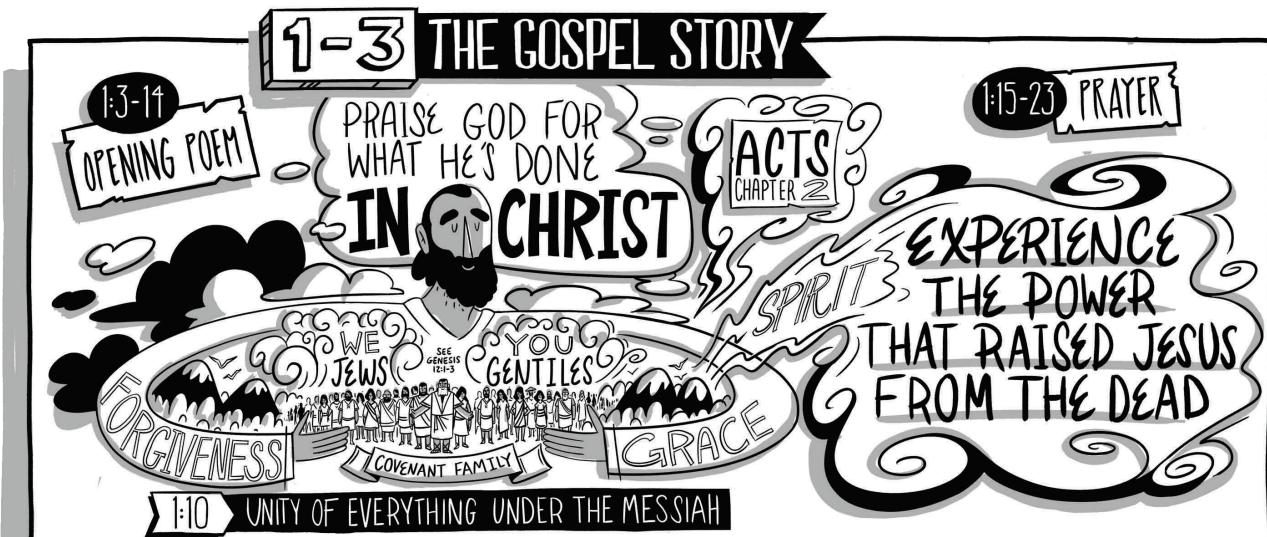
이 편지에서 바울의 생각은 확실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에서 바울은

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한 그분이 자신을 따르는 다민족 공동체를 창조하심 가운데, 어떻게 모든 역사가 절정에 이르는지를 살펴봅니다.

편지 후반부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전반부와

연결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 모든 부분에, 개인적으로, 또한 이웃과 공동체와 가족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이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봅시다.





1.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전세계적인 다민족 단일교회의 형성

복음, 예수님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바울은 아름다운 유대 스타일의 시편으로 시작하며 (엡1:3-14),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해 그분께 찬양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영원 전부터 언약 백성들을 선택하고 복 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족과 창세기 12:1-3절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그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가장 나쁜 죄들과 최악의 실패들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은혜로 인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전혀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뤄진 다민족 단일 교회: 바울은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구세주란 뜻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회복된 인류가 메시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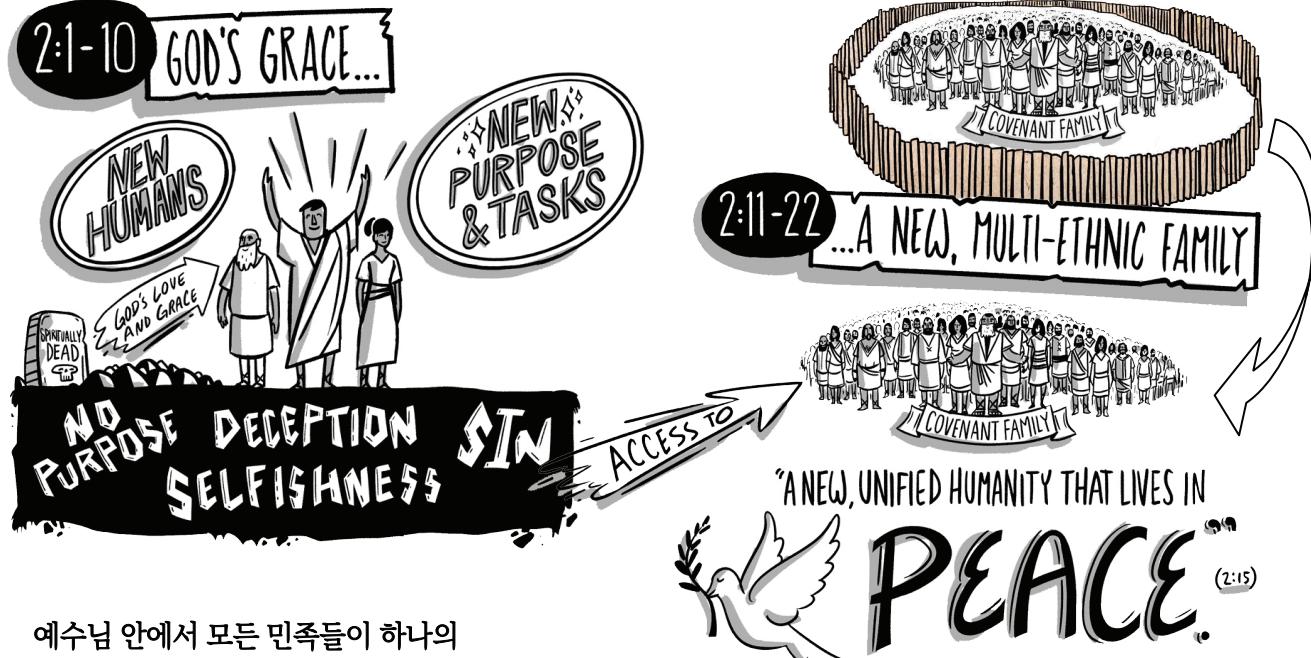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목적이 분명해 진

것은 ‘우리’가 그 가족이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비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저희도 예수님과 또한 그를 통한 구원에 대해 들었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이 가족에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역자주: 저자가 말하는 ‘비유대인들’은 원어로 하면 ‘모든 민족들’임.]

여기서 바울은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잘 알려진 사건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이끄셨는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복음에 드러난 삼위 하나님의 역사: 또한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이 이 시를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여 다음엔 예수님으로, 그리고 여기서 끝으로 성령에 대해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정말 멋지게도, 성삼위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에 이어, 바울은 기도로 반응합니다 (엡 1:15-23).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즉, 제자)들이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이 온 세상의 머리로 존귀히 여김받게 하신 그 동일한 능력이 그들을 힘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짐: 이제 2장에서, 바울은 1장의 시에 나온 몇몇 핵심 개념으로 돌아가, 특히 ‘하나님의 은혜’(엡 2:1-10)와 예수님의 새로운 ‘다민족 가족’(엡 2:11-22)에 대해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는 어떻게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다시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듣기 전에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기심과 죄로 가득한 목적없는 삶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한 어둡고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그들의 생명을 연합시켜 주셔서, 참된 삶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사람으로 지어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들 앞에 두신 새로운 소명과 목적과 과업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듣기 전에 비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언약 백성 즉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천적인 의미에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그 가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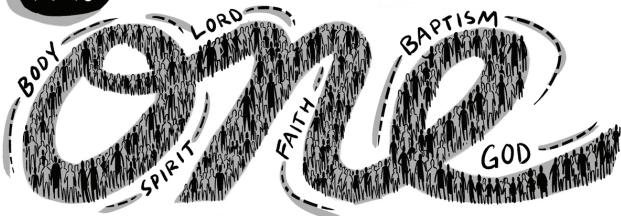
담처럼 되어, 마치 비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벽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이뤄지고, 그 담은 제거되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들이 ‘화평하게 되어 함께 사는 한 새 사람’이 됩니다 (엡 2:15).



바울은 계속해서 3장에서 자신이 비유대인들(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독특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감격합니다. 간혀있음에도 이 언약 백성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편지 전반부를 또 다른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그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4-6 OU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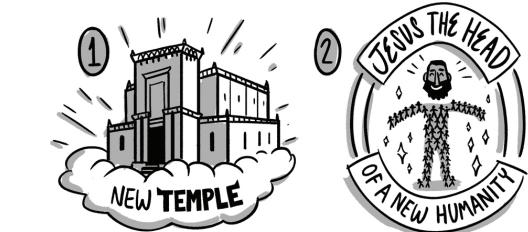
4:1-16



UNITY ~~DOES NOT~~ = **UNIFORMITY**



TO BUILD UP THE CHURCH:



2. 복음이 새롭게 할 우리 삶의 이야기

하나됨: 바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믿는 자들이 복음의 이야기에 반응하여 자기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반응하도록 도전하며, 편지 후반부를 시작합니다(엡 4:1-16). 그래서 바울은 4 장에서 교회(믿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아주 많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대가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라는 말이 4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믿는 자들은 한 성령에 의해 연합된 한 몸입니다. 우리에게 한 믿음, 한 주님이 계십니다. 한 세례에,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됨이 많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됨이 모두가 다 똑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주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새 가족으로 구성되는지 살펴봅니다. 그들은 한 성령에 의해 권능을 받고, 각각의 특별한 달란트를 사용하고 열정을 다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멋진 비유 둘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고, 둘째는 믿는 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사람은 바울이 다른 두 장에서 계속 다룰 비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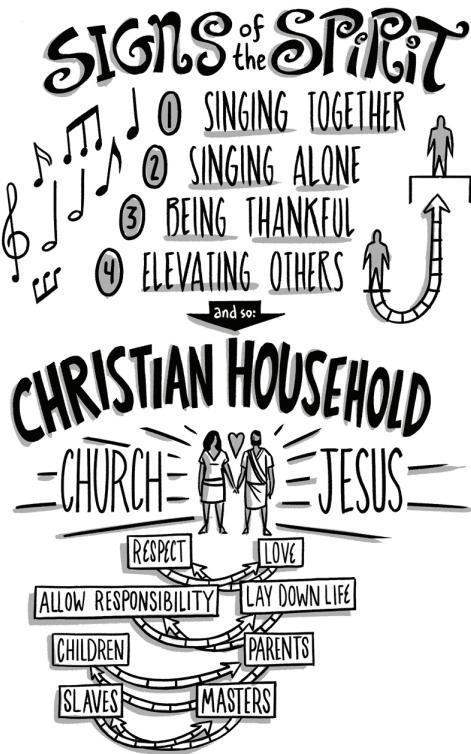
옛사람과 새사람: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옛사람을 마치 헌 옷처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사람을 입으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긴 단원에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계속 비교해 나깁니다. 새사람은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고,

분을 품
대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합니다.
훔치는 대신
풍성하게
나눕니다.



수군대기 보다는 말로 다른 이들을 격려 합니다. 복수 대신 용서합니다. 성적 충동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릅니다. 술 취하는 대신 새사람은 성령의 영향 아래 [즉, 성령 충만하여] 삽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바울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네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해 줍니다. 첫째와 둘째는 노래와 관계됩니다. 함께서도 하고 혼자서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첫째로 성령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한 것이 노래와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영향 가운데 사는 방식은 언제나 모든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강권하여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밑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중히 여기고 높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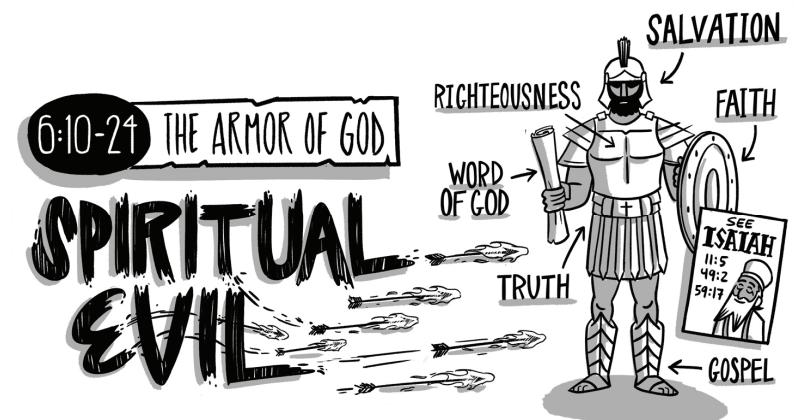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사람: 그리고 바울은 넷째 요점을 좀 더 확장해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녀를 위해

책임지는 남편이 될 수 있게 해주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의 책임감을 다해 그의 이기적인 일들을 내려놓고, 자신보다 아내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결혼생활이 복음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남편의 행동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자기희생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행동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도록 해드리는 교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개념을 아이들과 부모에 적용하고 또한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결론 - 메시아를 닮기 위한 바울의 전신갑주: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악의 실체에 대해 일깨워줍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약화시키고, 새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굳게 서라고 도전하며 전신 갑주의 비유를 자세히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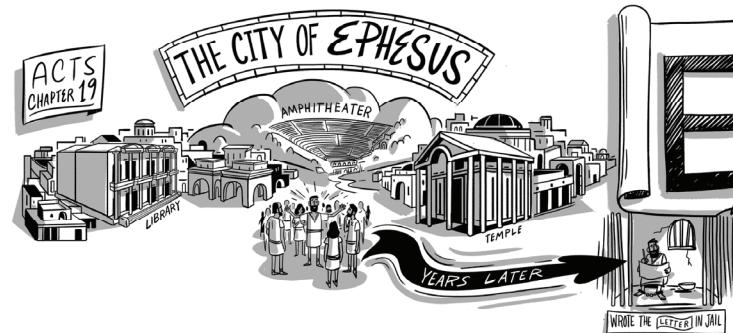
바울은 전신갑주의 모든 부분들을 이사야가 메시야 왕을 묘사한 내용에서



따왔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로서, 메시아의 속성이 우리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어 기도와 말씀과 서로와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도움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속성을 갖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요약하며,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의 이야기 모든 부분을 재구성해야 하는지 말해 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PAUL SUMMARIZES
THE GOSPEL STORY
& HOW IT SHOULD RESHAPE EVERY PART OF
OUR STORY.**



PAUL'S LETTER TO THE EPHESIANS

PAUL SUMMARIZES
THE GOSPEL STORY
& HOW IT SHOULD RESHAPE EVERY PART OF
OUR STORY.

1-3 THE GOSPEL STORY

- 1:3-14 OPENING POEM
- PRAISE GOD FOR WHAT HE'S DONE **IN CHRIST**
- 1:15-23 PRAYER
- ACTS CHAPTER 2
- EXPERIENCE SPIRIT, THE POWER THAT RAISED JESUS FROM THE DEAD
- 1:10 UNITY OF EVERYTHING UNDER THE MESSIAH
- 2:1-10 GOD'S GRACE...
- 2:11-22 ...A NEW, MULTI-ETHNIC FAMILY
- NO PURPOSE DECEPTION SIN
- NEW HUMANS
- NEW PURPOSE & TASKS
- ACCESS TO COWENANT FAMILY
- "A NEW, UNIFIED HUMANITY THAT LIVES IN PEACE"
- MAY YOU BE STRENGTHENED BY GOD'S SPIRIT & GRASP THE LOVE OF CHRIST

"THEREFORE"

1:1-10

ONE
Body Spirit Lord Faith Baptism God

UNITY DOES NOT = UNIFORMITY

ONE SPIRIT, MANY GIFTS

- APOSTLE
- PASTOR
- PROPHET
- TEACHER
- EVANGELIST

TO **BUILD** UP THE CHURCH:

- 1 NEW TEMPLE
- 2 JESUS THE HEAD OF A NEW HUMANITY

4-6 OUR STORY

1:17-6:9

OLD **NEW**

- TAKE OFF LIES ANGER THEFT GOSSIP REVENGE PROMISCUITY DRUNK
- PUT ON TRUTH PEACE GENEROSITY ENCOURAGE FORGIVENESS SELF-CONTROL GOD'S SPIRIT

SIGNS of the Spirit

- ① SINGING TOGETHER
- ② SINGING ALONE
- ③ BEING THANKFUL
- ④ ELEVATING OTHERS

CHRISTIAN HOUSEHOLD

- CHURCH - AND JESUS -
- RESPECT LOVE
- ALLOW RESPONSIBILITY LAY DOWN LIFE
- CHILDREN PARENTS
- SLAVES MASTERS
- SALVATION

6:10-21 THE ARMOR OF GOD

RIGHTEOUSNESS FAITH WORD OF GOD TRUTH GOSPEL

SPIRITUAL EVIL

SEE ISAIAS 11:5-9:17

created by the Bible Project